

# 사기계좌 모니터링 시스템 효과 '톡톡'

## NH농협은행, 5년 연속 '대포통장 최저 범죄율' 도전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대포통장과의 전쟁' 선포 이후 범죄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대포통장 범죄건수 대비 농협은행 내 범죄 건수 비율은 3.9%로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월 현재 전북 도내 대포통장

발생건수도 영업점당 0.8개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포통장 범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농협은행 점유율은 21.4%로 높은 수준이었고 이에 경각심을 갖게 된 농협은행 직원들은 사무실에 대포통장과의 전쟁이라는 슬로건까지 내걸면서 범죄예방에 힘써왔다.

대표적인 것이 사기계좌와 탐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다. 농협은행은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를 사전에 추출한 뒤, 피해 금액이 입금되면 자동 지급정지 절차를 밟았다. 아울러 의심계좌 거래 상황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 요원 수도 점차 확충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4년 연속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이며 대포통장 범죄 척결

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장근 본부장은 "현재 농협은행에서 대포통장 범죄율이 급감한 것은 은행 자체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며, "대포통장 범죄, 보이스 피싱 범죄는 나이,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는 전 국민대상 범죄이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직원 교육 강화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중기청, 지원기관과 중기 정책홍보 박차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전북교통방송(본부장 이성원)과 12일 전북중기청 중회의실에서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에 힘쓰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공단 전북지역본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등 5개 지원기관이 함께 했다. 협약으로 전북중기청은 오는 6월 24일부터 지원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3주마다 교대로 TBN 전북교통방송에

출연하여 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생생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중기청은 7월부터 창업·벤처, 자금, 판로, 수출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도내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달의 중소기업 정책정보지'를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조정협력과 김동일 주무관은 "매일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한 중진공, 소진공 등 도내 지원기관의 시책을 한 곳에 모아 시군 및 지원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청서 등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중기청이 전북교통방송과 12일 전북중기청 중회의실에서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농어촌공 전복, 부채농가지원 경영회생사업 호응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2019년 5월 현재까지 경영회생지원사업비 143억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했으며, 연말까지 363억원의 사업비를 농가경영여건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은 지난 2006년에 도입되어, 일시적 경영위기

에 처한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채농가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 사업이다. 부채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 사

업도입 이후 전북도 관내지역에 2019년 5월 현재까지 1482농가가 3605억원의 회생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매입농지와 시설물은 사업비를 지원 받은 농가가 장기간 임대(최장 10년)

하여 영농을 할 수 있고, 농가 경영정상화 후에는 농업인이 되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줘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 등의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농가부채가 3000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심의를 거쳐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김영태 기자

## 농어촌공 전복,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 일제점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본격적인 장마철 이전에 건설공사 현장의 완벽한 정비를 위해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21일간 재해취약 공사현장을 포함한 관내 전 공사현장에 대한 우기대비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85개의 공사현장에 대한 우기전 재해발생 우려시설의 안전대비 실태, 공사현장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수

방자재 비치 현황, 배수장 등 홍수배제시설의 우기전 가동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정비해 연내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강환 본부장은 "본격적인 장마철 이전에 공사현장의 우기대비 실태를 충실히 점검하여 재해가 발생될만한 작은 위험요소라도 사전에 제거하여 건설현장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 농식품부, 내달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이재호 장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 등록 정보를 현행화 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 군, 구별로 동물 미등록자,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 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및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 군, 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동물의 유실, 사망,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롯데백 전주점이 내일부터 여름맞이 'Exciting스포츠 박람회' 행사를 진행한다.

## 여름 시즌 준비 본격 '돌입'

### 롯데백, Exciting '체험형' 스포츠 박람회 최초 행사

롯데백화점 전주점(조합장 정장)은 내일부터 18일까지 여름맞이 Exciting스포츠 박람회 행사를 진행한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만큼 여름 인기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하며, 줌바댄스 시연, Run&Game 이벤트 체험, 안마기/자세교정 체험 등 고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체험형 박람회 형식으로 준비했다. 특히, 행사는 롯데백화점 전주점 영업팀과 상품본부의 '본권 실험'으로 탄생한 지역MD팀 정두나 바이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수도권 지역 위주로 진행되었던 행사를 전주점이 최초로 진행하게 된 데 의미가 있다. 올해 처음 런칭한 국내 우먼 애슬레지 브랜드 '말고스틴'을 전주점에서 백화점 업계 최초로 오프라인에 선보이며, '실리스 레깅스 2중세트' 상품을 파격가인 6,900원(300장 한정) 판매할 계획이다. 전주점 6층 행사장에서는 나이키, 아디다스, 크록스 등 MEGA스포츠 브랜드가 참여하여 나이키 허리치런 울트라 7만9000원 / 카와 슬리퍼 2만5000원 / 아디다스 슈퍼스타 6만 5400원(50쪽판) / 크록스 아토티(샌

들/클로고) 1만9900원 등의 여름 상품을 판매한다. 또한, 아웃도어 4대 Cool Summer 특집을 통해 디스커버리 티셔츠 3만 3000원 / 빈폴스포츠 스트링 팬츠 4만9000원 / 밀레·블랙야크 등 최대 50% 판매하며, 런제리 대표주자인 비즈니스·비비안·엘리너웨어 브랜드가 참고 대가방을 통해 파격적인 상품을 판매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매년 수도권 박람회에서 고객에게 입소문을 일으켰던 건강을 위한 토탈 헬스/마사지/안마기(다터웰), 자세교정기(립레스트)등 브랜드들이 참여해 고객들은 직접 현장에서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고, 직원은 고객들에게 직접 운동 방법을 코칭해 줄 예정이다. 행사 시작일인 14일~15일은 Runme 이벤트 체험이 진행된다. 센터형 발판을 활용해 스크린게임 즐기며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Fun이벤트이다. 롯데백화점 조합장 정주 정장은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어플리슈즈 및 뉴트론 패션을 통해 고객들이 다양한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협, 스스로 개선하는 축산환경 분위기 조성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12일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창수)과 공동으로 축산인 스스로 노력하는 축산환경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완주군 고산면 소재 축산 농가를 임직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악취 저감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축사청소, 농장 주변 경관 개선, 퇴비사 내부 미생물 살포 및 소독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유재도 본부장은 "깨끗한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축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가들이 스스로 앞장서 줄 것을 강조 했다"고 밝혔다. 김창수 조합장은 축협을 중심으로, 매일 두 번째 수요일에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축산환경개선에 대한 농가 스스로 의식 변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